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참된 행복을 위해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지혜로운 분별력을 바탕으로 절제 있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쾌락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성인(聖人)과 우리는 본성에서 다르지 않으며, 그 본성은 선하다. 다만, 성인은 이치와 의(義)를 먼저 깨달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와 도(道)에 따라 지극히 크고 강한 기운[浩然之氣]을 길러야 한다.

을: 본성이 없다면 작위(僞)가 가해질 곳이 없고, 작위가 없다면 본성은 아름다워질 수 없다. 본성과 작위가 합쳐진 다음에야 성인이라는 이름[名]과 천하를 통일하는 공(功)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① 갑: 사욕을 좇아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다.
- ② 갑: 사덕(四德)을 확충하지 않으면 사단(四端)을 형성할 수 없다.
- ③ 을: 성인이 아니거늘 인의(仁義)를 알 수 있는 자질이 없다.
- ④ 을: 도덕의 근원인 하늘을 따르지 않으면 작위를 일으킬 수 없다.
- ⑤ 갑과 을: 소인(小人)은 본성만으로 도덕적 삶을 완성할 수 없다.

3.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만약 유용성이 도덕 감정의 한 원천이라면, 또한 이러한 유용성이 항상 자신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사회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은 곧장 우리의 승인과 호의를 받을 만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을: 두 가지 쾌락을 잘 알고 음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의 더 고등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 방식을 뚜렷하게 선호 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양이 적더라도 질이 높은 쾌락을 분명 선택할 것이다.

- ① 갑: 이성만은 정념이 선택한 수단의 불충분함을 알려 줄 수는 없다.
- ② 갑: 정념이 거짓 믿음을 기초로 의지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는 없다.
- ③ 을: 자기희생은 그 자체로 선택하기에 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을: 다량의 불만족을 동반하더라도 선호되는 쾌락이 있을 수 있다.
- ⑤ 갑과 을: 행위자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선택할 수는 없다.

4.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레스 퍼블리카’에서의 연대, 즉 공화주의에서의 연대는 민족 주의에서의 연대보다 훨씬 강하고 숭고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타인의 의지에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 애국심이란 시민적 자유를 지켜 주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애국심은 인위적인 감정이지만 국가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이다.
- ②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시민적 자유의 영역은 넓어진다.
- ③ 개인들 간 예속의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 ④ 문화적·종교적 동질성이 보존되는 곳이면 어디든 조국은 존재한다.
- ⑤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아닌 민족의 고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동양 불교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비구들이여! 고행이나 쾌락 같은 양극단을 피해야 하니, 심신의 조화를 얻을 수 있는 팔정도(八正道)가 아니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나는 무익한 고행을 버린 후 팔정도의 수행법에 의해 세상과 인생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진실로 동요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여 부처가 되었다.

- ① 얇은 고통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무명(無明)을 유지해야 한다.
- ② 업(業)은 의지에 따라 지은 것이므로 윤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만물은 연기의 진리에 의해서만 불변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해탈에 이르려면 중도(中道)에서 벗어나 팔정도를 수행해야 한다.
- ⑤ 자아를 고정된 실체로 인식하지 않아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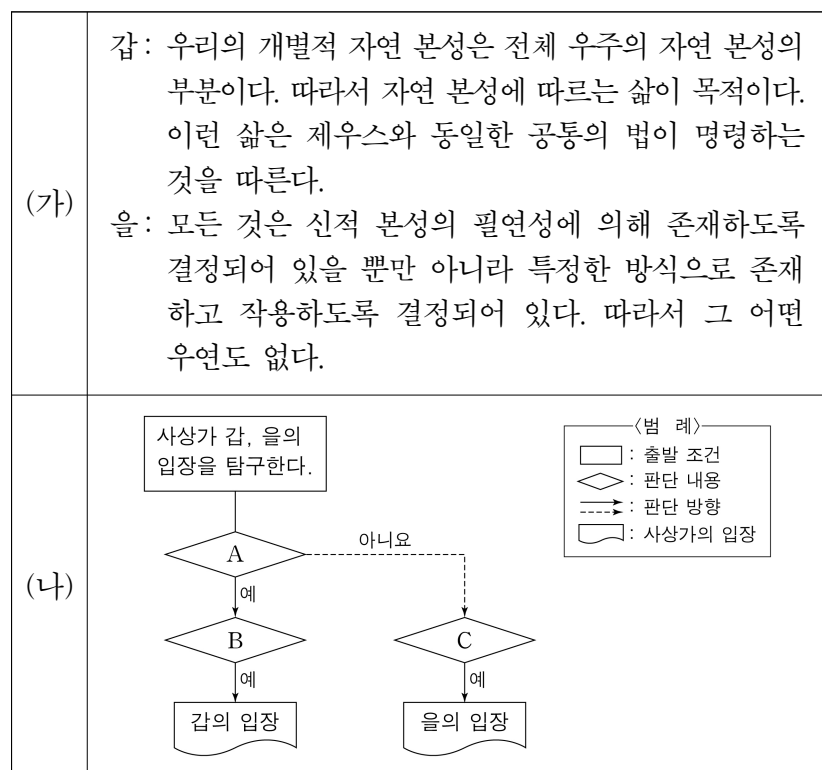
6. 중세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의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행복으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행복으로, 오직 신적인 힘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을: 두 가지 사랑이 두 나라를 만들었다. 신까지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나라를, 자기를 멸시하면서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의 나라를 만들었다. 지상의 나라는 인간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천상의 나라는 신을 영광으로 여긴다.

- ① 갑: 신의 관여가 없더라도 인간은 모든 덕을 실천할 수는 있다.
- ② 갑: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연적인 성향에서 의무가 도출된다.
- ③ 을: 인간이 최고의 덕을 실천하면 지상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다.
- ④ 을: 인간은 죄로 인해 자유 의지가 소멸되어 신을 사랑할 수 없다.
- ⑤ 갑과 을: 최고선은 인간의 행위로 성취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한다.

7. (가)의 고대 서양 사사가 갑, 근대 서양 사사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세계와 만물의 생성에 신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가?
- ㄴ. B: 신이 부여한 운명은 우리 마음의 방향까지도 지배하는가?
- ㄷ. C: 정신적 만족이 있어야만 비로소 행복한 삶이 가능한가?
- ㄹ. C: 인간의 존재 사실뿐 아니라 작용 방식도 결정되어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사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에 관해 고찰해야 한다.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기능은 이성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은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탁월성의 한 종류는 품성적 탁월성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 탁월성이다.

- ① 절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제 있는 일을 행할 수는 없다.
- ② 선에 관한 탐구는 선의 획득보다 선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③ 영혼의 비합리적 요소는 품성적 탁월성의 형성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자제력 없는 사람은 실천적 지혜를 지니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
- ⑤ 선한 것에서 분리된 선 자체는 없고 그 자체로 욕구되는 선은 있다.

9. 한국 불교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여러 경전의 부분들을 통합하여 보면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하나의 의미로 귀결된다. 그러니 부처가 제시한 보편적이고 공정한 뜻을 토대로 백가(百家)들의 서로 다른 논쟁을 조화롭게[和諍] 회통해야 한다.

을: 중생은 그 본성의 바탕에 원래 번뇌와 고통이 없고 성품이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같음을 깨달았어도 습기(習氣)는 쉽게 고치기 어려우므로 점수(漸修)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

<보 기>

- ㄱ. 갑: 중생은 공(空)을 깨달아야 불성(佛性)을 지니게 된다.
- ㄴ. 갑: 현실의 마음(生滅)을 배제한 청정한 마음이 일심(一心)이다.
- ㄷ. 을: 오래된 나쁜 인식이 남아 있어도 본성을 직시할 수 있다.
- ㄹ. 갑과 을: 출가자는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사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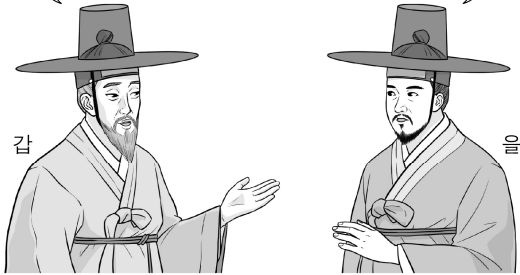
측은, 수오의 마음은 안에서 일어나고, 인의(仁義)는 밖에서 이루어진다. 사양, 시비의 마음은 안에서 일어나고, 예지(禮智)는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요즘 선비들은 사덕(四德)이 뱃속에 장기처럼 존재하고 그로부터 사단(四端)이 나온다고 생각하니 이는 잘못이다.

- ①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반드시 성(性)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욕망[欲]이 반드시 필요하다.
- ③ 형구의 기호는 동물과 공유하는 본성이므로 그 자체로 악하다.
- ④ 측은해하는 마음[惻隱之心]은 인의 덕을 형성하는 이치[理]이다.
- ⑤ 타고난 본성인 자주지권에 따라 스스로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다.

11.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단과 칠정 모두 이(理)와 기(氣)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유래와 관련하여 각각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사단을 이라고 하고 칠정을 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라고 하면, 한 마음에 두 개의 근본이 있게 되니,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여 생겨난 감정입니다.



- ① 이가 기를 제어할 수 있을 때 도덕적 행위가 가능함을 간과한다.
- ② 이는 발할 수 없지만 사단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이를 드러내는 것이 치우친 기질의 교정보다 우선함을 간과한다.
- ④ 이가 현실에서 기와 결합하여 인간과 사물이 생성됨을 간과한다.
- ⑤ 이와 사단은 순선하므로 기질의 간섭을 받지 않음을 간과한다.

1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인간은 사회 계약으로 무제한의 권리를 잃어버리지만, 소유권뿐만 아니라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를 새롭게 얻게 된다. 공화국에서 법과 주권은 사회 계약의 주체들이 창출하는 일반 의지에 근거해야 한다. 을: 인간이 사회 계약을 맺는 가장 중대한 목적은 그들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분쟁을 해결해 주는 공통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보 기>

- ㄱ. A: 국가가 공동선의 침해를 의도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ㄴ. A: 시민은 주권을 소유하기에 입법권을 양도할 수 없다.
 ㄷ. B: 법률의 제정 없이 각자는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 없다.
 ㄹ. C: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은 누구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대중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되 아름다움 자체는 보지 못하며, 많은 정의로운 것들을 보되 정의 자체는 보지 못한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은 갖지만 지식은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의 자체를 향하여 인도하는 철학자가 있어야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 ① 좋음 자체와 정의 자체는 존재의 위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 ②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변화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 ③ 아름다움 자체가 여럿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여럿일 수 있다.
- ④ 완전히 정의로운 국가보다 뛰어난 정의의 원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좋음 자체는 인식을 기능하게 하는 원인일 뿐 인식 대상은 아니다.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경향성의 영향 및 경향성과 함께 있는 의지의 모든 대상을 전적으로 격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의지를 위해서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외에 남는 것은 없다.

- ① 의욕과 도덕 법칙 간의 일치가 필연적일 때 당위는 성립할 수 없다.
- ② 자연적 경향성이 제거될 때 의무로부터의 행위가 비로소 가능하다.
- ③ 이성이 항상 의지를 완벽히 결정하는 존재만이 자율적일 수 있다.
- ④ 자기 사랑의 원리가 도덕 법칙에 합치하는 행위를 촉진할 수는 없다.
- ⑤ 어떠한 행위의 필연성도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될 수 없다.

15.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각 개인이 고려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지 공익이 아니다.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통해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을: 정부 기능의 확대는 자유방임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시장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완전 고용을 실현할 수 없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① 갑: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공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 ② 갑: 정부는 계획 경제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 ③ 을: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④ 을: 정부는 시장에 대한 불간섭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정부는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일 당신이 숲에서 길을 잃고 굽주리다가 소가 다니는 길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길 끝에 있는 집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생각이 참인 이유는 그 대상인 집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관념의 실제적 가치는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하다는 데에서 나옵니다. 어떤 관념이 검증 과정을 통해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관념은 비로소 참된 관념이 될 수 있고 실제적 가치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① 진리는 실재와 관념의 일치이기에 실제적 결과와는 관련이 없다.
- ② 신학적 관념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유용하지 않아도 참이다.
- ③ 어떤 관념에 내재한 변함없는 속성이 그 관념의 참됨을 보장한다.
- ④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경험의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 ⑤ 진리의 소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지만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17.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다 이치가 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의 학문은 마음으로 이치를 궁구(窮理)하고 그 이치에 따라 사물에 응하는 데 있다. 이것은 약으로 눈을 치료한 뒤 눈이 밝아져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을: 만물의 이치는 마음 바깥에 없으므로 양지(良知)를 덮는 기질과 물욕만 제거하면 된다. 그럼에도 마음의 양지에 힘쓰지 않고 밖에서 이치를 구하는 것은 눈이 어두운 자가 약으로 눈을 치료하지 않고, 밖에서 밝음을 찾는 것과 같다.

- ① 갑: 마음 안의 이치와 사물 안의 이치는 서로 그 근원이 다르다.
- ② 갑: 치지(致知)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격물(格物)에 이를 수 없다.
- ③ 을: 악한 생각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악을 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
- ④ 을: 양지는 그 자체로 선행하기에 욕구에 가려지는 경우는 없다.
- ⑤ 갑과 을: 인욕(人欲)을 버리고 천리에 따라야 양지가 생성된다.

18.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우리의 도(道)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여 실천하면, 한울님의 성품을 거느리게 되고 한울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 자연스런 가운데 조화가 나온다.

을: 도는 삼강오륜과 효제충신이니,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는 오랑캐 땅에 가더라도 버릴 수 없다. 기(器)는 의복과 장신구와 기술의 쓰임이니, 백성에게 이롭다면 오랑캐의 양식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 ① 갑: 모든 사람은 마음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존귀하다.
- ② 갑: 수심정기(守心正氣)는 올바른 도리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 ③ 을: 절의(節義) 수호를 위해 서양과의 물질 교류를 단절해야 한다.
- ④ 을: 동양의 도[東道]를 배척하여 올바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1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그 속에서 정치인들은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 수단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한다. 시민은 그들을 지배할 엘리트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만 가진다.

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법은 오직 시민 사회에서 담론을 통해 창출된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즉 공론장과 같은 담론을 통한 입법 과정 속에서 모든 잠재적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만이 정당하다.

- ① 갑: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방법일 뿐이다.
- ② 갑: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다.
- ③ 을: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직접 참여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 ④ 을: 민주주의는 담론 참가자에게 선호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갑과 을: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정치적 정당성을 결정해야 한다.

20.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에게

지난번 자네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물었기에, 몇 마디 적어 보내네. 뜻을 하나로 모아 사물의 소리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며, 또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야 하네. 귀는 감각적인 소리를 듣는 데 그치고, 마음은 지각할 뿐이지만, 기는 마음을 비워 사물과 호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네. 도(道)는 오직 마음을 비우는 곳에 모이기에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이네. 이것이 이른바 심재(心齋)라네. 또한 몸의 감각을 물리치고, 마음의 지각을 없애 버려 자신을 완전히 잊음으로써 큰 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네. 큰 도와 하나가 되어 변화하면 편애와 집착이 없어질 것이네. 자네는 이 말을 명심하여 자유로운 경지를 추구하며 살아가게나.

- ① 인간만이 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물은 인간을 본받아야 한다.
- ② 좌망(坐忘)을 통해 효제(孝悌)의 도리를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 ③ 인의(仁義)의 덕을 추구하여 소요(逍遙)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 ④ 도에 따라 분별적 인식 작용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 ⑤ 도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여 사물들의 귀천(貴賤)을 구별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